

# 한천 344m 복개구조물 철거된다

### 제주시 사업비 300억 투입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비

### 제주시 “생태하천으로 복원 양 옆으로 도로 개설할 것”

태풍 ‘차바’와 ‘나리’내습 당시 하천 범람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한천 복개구조물이 철거된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유실위험 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된 용담1동 2581-4번지 일원(한천 복개구간=344m)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150억)을 투입해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 반복개 구조물(켄탈레버) 및 호안설치(L=344m), 교량 3개소를 가설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완료시 하천내 유송잡물 걸림 현상 등에 의한 월류로 발생했던 복개구조물 파손 및 인명·재산피해, 주택 침수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향후 3년내 철거될 예정인 한천 복개구조물 구간.

강희만기자

지난 2016년 10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12시간 강우량 174.8mm)로 인해 한천 하류가 범람하면서 주택 13동과 도로가 침수되고 3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12시간 강우량 420mm)내습 당시에는 한천의 범람으로 4명이 사망하고 주택파손 4동, 주택침수 70동, 차량파손 201대, 복개구조물 1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8년 하수구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를 통해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양 옆으로는 도로를 개설해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제주시내 나머지 복개구조물들도 단계적으로 철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 신장 기증인들의 ‘신기한 산행’

### 11~13일 이식받은 사람들과 한라산 등반

고귀한 생명나눔을 실천한 신장 기증인들과 그 사랑을 통해 새로 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이 함께 한라산으로 가을 산행을 떠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신기한 산행(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한라산 산행)’을 진행한다. 이번 산행은 장기기증 운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장기 기증 및 이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생명이 후원하는 이번 산행에는 신장 기증인과 이식인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 회원 52명이 참여하며, 2박 3일간 한라산 등반을 비롯한 에코랜드 테마파크

크 관광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한라산 산행에 참여하는 국내 최초 신장 기증 기부 권재만(86)·김교순(81)씨는 “신장을 기증한 뒤에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더니 체력은 젊음이 못지 않다”며 등반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991년 1월 국내 최초로 신장을 기증한 박진택 이사장도 아내 홍상희씨(1997년 6월 기증)와 함께 참여한다.

한편 새생명나눔회는 1991년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모임(신기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97년 새생명나눔회로 명칭을 변경,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도교육청 예산집행률 제고 안간힘

### 이달 기준 71.7% 기록 전국 교육청 평균 7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남은 기간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도교육청의 예산집행률은 71.7%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다. 올해 전체 예산(이월액 포함) 1조5588억원에서 1조1091억원이 집행됐지만 4500억원 가량이 쓰이지 못한 채 남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시교육청(80.2%)과 경기도교육청(79.8%), 부산시교육청(79.4%) 순으로 예산집행률이 높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예산집행률은 77.5%였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데는 학교 시설 증개축이나 석면 제거사업과 같은 시설비 집행 저조

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시설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827억원인데 246억원만 쓰이면서 집행률이 29.7%에 그치고 있다.

남은 예산 집행이 ‘발등의 불’이 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컨설팅 추진단을 ‘재정집행비상점검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예산집행률을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의 경우 발주가 완료돼도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집행할 예산으로 남아 집행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의 항목에선 전국 평균보다 높은 8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집행률 제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제주 소각시설 2곳서 다이옥신 배출

### 환경부 전국시설 점검결과

제주지역 소각시설 업체 두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25곳 사업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

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준초과 시설 사업장은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이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됐으며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 보조금 빼돌린 사찰 주지·건설업자 징역형

지정문화재인 석조불상의 보호 누각 설치 공사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와 사찰 주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B(6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 애월읍 모 사찰에 있는 지정문화재인 석조불상의 보호 누각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

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용보다 약 2억원 부풀린 9억8700만원(자부담 5억 5900만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신청해 제주시로부터 받아냈다.

또 A씨는 문화재수리업을 할수 없음에도 서귀포시 모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 부장판사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였다는 점, 완공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이명희 공주대교수 “제주국제대 이사 안 말아”

제주국제대 이사로 내정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국제대 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제주국제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희 교수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확대 운영하고, 예산집행률을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의 경우 발주가 완료돼도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집행할 예산으로 남아 집행률에는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의 항목에선 전국 평균보다 높은 8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집행률 제고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줄 것을 동원교육학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교수가 제주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국제대의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이사회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지은기자

## 전신주 총돌 운전자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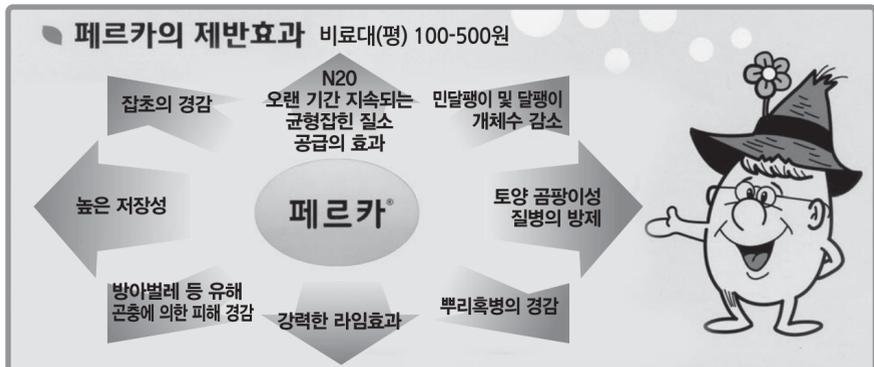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어승생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SUV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어승생 삼거리 남쪽 도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기자

##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